

## 2021 년 각 국 정부에 대한 기후 위기 관련 글로벌 투자자 성명

[The Investor Agenda\(투자자 어젠다\)](#) 창립 파트너 7 개 기관이 참여한 본 성명은 자산 규모가 USD \$41 조를 넘는 457 개 투자자들이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기관 투자자와 정부 지도자들이 힘을 발휘하여 야심 찬 목표를 제기하고 기후위기 대응 조치를 가속화하는 중추적인 10 년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도전에 응하여 즉각적으로 행로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 세기에 지구 평균 온도는 3°C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sup>1</sup>. 이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 협약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면하려면 온도 상승이 1.5°C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2030 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2010 년 수준에서 45% 감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sup>2</sup>, 2050 년 또는 그 전에 순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려면 모든 온실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도자들이 순배출량 제로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코로나 19 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가 제 26 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위해 회동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2030 년에 대한 국가결정기여(NDC)를 크게 강화하고 2050 년 또는 그 전까지 예정대로 순배출량 제로로 전환하도록 장려합니다. 각 국의 책임과 국가별 역량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순배출량 제로에 맞추어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중단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국가 기후 정책을 실행하는 나라는 투자 대상국으로서 점차 매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그러지 못하는 국가는 경쟁 열위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통의 글로벌 위기 속에서 투자자와 각 국 정부는 각자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The Investor Agenda(투자자 어젠다)에 따라 기후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순배출량 제로 목표와 전략을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결정에 반영하고, 기업들을 배출량 감축에 동참하게 하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확고한 기후 행동을 실현하라고 촉구하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sup>1</sup> <https://www.unenvironment.org/emissions-gap-report-2020>

<sup>2</sup> <https://www.ipcc.ch/2018/10/08/summary-for-policymakers-of-ipcc-special-report-on-global-warming-of-1-5c-approved-by-governments/>

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핵심적인 신의성실의무로서 기후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순배출량 제로 경제로의 전환과 연관된 기회로 이득을 볼 방안을 다급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배출량 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수조 달러의 금액을 적절히 할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NDC 에 명시된 현행 정부 약속과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는 데 필요한 배출량 감축 사이의 목표 간극으로 인해 제한됩니다. 또한 기업 소유자 혹은 기업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기관들로서 우리는 이러한 기업들이 기후 변화로 제기된 위험과 기회를 어떻게 평가 및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적극적 공개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후 목표, 정책 행동, 위험 공개에서 보이는 이러한 간극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1 년에 각 국의 모든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2050 년 또는 그 전까지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고 순배출량 제로로 전환하는 계획에 맞추어, COP26 전에 2030 년에 대한 NDC 를 강화해야 합니다.
2. 2050 년까지 국내 순배출량 제로 목표에 전념하고, 탄소 집약적인 각 부문에 대한 명확한 탈탄소화 로드맵을 포함하여 야심 찬 중간 목표를 갖고 그 달성 경로를 요약 기술해야 합니다.
3.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내 정책을 시행하고, 배출량 제로 해법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확고한 탄소 가격 책정 △정해진 기일까지 화석 연료 보조금 폐지 △1.5°C 온도 경로에 맞추어 발전용 석탄을 기반으로 한 전기 발전의 단계적 중단 △새로운 탄소 집약적인 인프라의 회피(예: 석탄 발전소 신설 금지)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공동체에 대한 공정한 전환 계획 개발 등을 통해 2030 년 전에 야심 찬 행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4. 코로나 19 경제 회복 계획을 통해 순배출량 제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회복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배출량 제로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 △탄소 집약적인 인프라 신설에 대한 공공 투자 회피 △정부 지원을 받는 탄소 집약적인 기업들에 파리 협약에 따른 기후 변화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5. 기후 관련 재무 공시 태스크 포스(TCFD) 권장사항에 맞추어 기후 위험 공개 의무 요건을 이행하며,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고 의사결정에 유용한 포괄적인 공개를 보장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는 방침에 따른 강력한 정책은 순배출량 제로 전환으로의 민간 자본 흐름을 가속화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파리 협약의 완전한 이행은 청정 기술과 친환경 인프라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경제에 필요한 기타 자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자본 배분과 스튜어드십을 이용하여 일자리와 경제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활동, 탄소 집약적인 활동을 벗어나는 전환, 회복력 증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국 정부가 투자자들과 긴밀히 교류하여 이러한 기회를 온전히 실현할 것을 장려합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2050 년 또는 그 전까지 기후 탄력적인 순배출량 제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메커니즘을 개발 및 시행하기 위해 각 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부에 기후 위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